

홍대앞에서 만난 예술

이미지 너머를 상상하기

장예빈 작가

Painter Jang Ye-bin

장예빈 작가는 영상 속 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해 그림을 그린다. 날아오는 공을 마주하는 순간, 균형을 잡고 있지만 넘어질 것 같은 찰나, 서로를 노려보는 시선,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지된 이미지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장예빈 작가를 만났다.



여기, 상기된 표정의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정면에서 다가오는 테니스공을 강렬하게 응시 중이다. 얼굴의 근육은 한껏 경직되어 있다. 짐작컨대 남자는 지금 당장 라켓을

휘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묘한 긴장감과 초조함이 느껴지는 이 그림은 장예빈 작가의 2023년 작품인 <Headshot 1>이다.

“제가 한창 테니스에 빠진 적이 있어요. 테니스 시합의 영상에서 이미지를 수집했고, 그 이미지를 참고해 <Headshot 1>, <Headshot 2>, <Last Chance> 등 세 작품을 그렸어요. 서브하기 전이나 공을 치는 순간의 표정을 담으려 했죠.”

장예빈 작가는 영상에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회화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다. 그는 동영상 플랫폼, SNS에서 영상을 보며 자신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짧은 순간을 캡처한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지금 장면에서 다음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유예하며 그 특정한 장면을 관찰하는 일에 흥미를 느껴요. 미묘한 얼굴의 근육, 일그러진 표정, 불명확한 시선, 극적인 움직임 등 연속적으로 흐르는 현실세계에서는 마주하기 어려운 순간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선명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디지털 영상을 작업에 활용하고 있어요.”

이미지에 위트를 더한 드로잉

장예빈 작가는 인터넷에 단어를 검색하며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찾는데, 그가 최근에 빠진 단어는 ‘난처함’이다. 특정 단어에 꽂히면 스포츠, 뉴스, 예능, 짧은 영상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미지를 수집한다. 그의 노트북에는 그렇게 저장된 이미지가 수도무적이다. ‘스크린샷 무덤’으로 이름 붙인 폴더에만 수천 장이 넘는 소스가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폴더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는 일이다.

장 작가는 캡처한 이미지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분을 크게 확대해 과장하거나 불러 처리를 한다. 때론 다른 이미지의 일부분과 결합해 예기치 못한 장면을 연출한다. 재조합한 이미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아크릴 물감과 붓, 에어브러시를 활용해 캔버스 위에 재빠르게 옮겨간다. “계획적이고 섬세한 드로잉보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거침없는 표현을 선호해요.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 부분은 붓으로 표현할지, 에어브러시를 사용할지, 어떤 색으로 칠할지 등을 바로바로 결정하는 편이에요.”

이러한 작업 스타일은 대학교 3학년 때 터득한 방식으로 1년간 드로잉 연습을 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먹, 수채화,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로 눈에 보이는 족족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매일 꾸준히 그렸죠.”

솔직하지만 이상한 그림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된 후부터는 줄곧 인물을 그려오고 있는 장 작가.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정돈되어 있지 않다. 어딘가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행복으로 포장된 이미지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장 작가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가식 없는 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불안함, 초조함, 좌절감, 긴장감 등 사람들이 굳이 보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기꺼이 들춰내어 보여주고자 한다.



비록 자신의 작품을 본 사람이 “기괴하다. 불쾌하다” 같은 평을 하더라도 그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제 그림이 예뻐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는 그림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런 반응이 솔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관객들의 다양한 반응을 즐기는 것이지만 첫 작품을 선보일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처음에는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이상한 유머를 던졌는데 사람들이 웃어준 느낌이랄까요(웃음). 그런데 제 유머가 먹히니까 저도 더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꾸준함에서 오는 빛나는 순간들

장 작가는 올해 첫 개인 작업실을 마련했다. 작업실은 아현동의 한적한 골목길 끝자락에 있다. 그는 이곳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작업한다. 영상을 뒤져가며 새로운 소스를 찾고, 이미지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도해보는 과정을 매일 반복한다. “제가 작품을 완성하는 순간은 즉흥적이지만, 그 순간을 위해 성실하고 꾸준히 계속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다’ 싶은 영감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장예빈 작가. 그가 작업을 통해 바라는 것은 하나, 바로 ‘재미’다. 스스로에게 재미있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그린 그림을 다른 이들도 재미있게 봐주길 바란다.

“제가 즐거워야 꾸준히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작가로서 힘든 날이 올 때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진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트 있게 전달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그러니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글·사진 | 권민정